

6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	01. '개척단' 조직과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랑인 단속과 '개척단' 동원 • 개간, 간척 노동 • 감시와 구타 	04. 떠난 사람들과 정착한 사람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산 개척단의 해산 • 정종의 농지 분배 후 떠난 사람들 • 정착한 사람들과 현재 	
학습목표	02. '개척단'의 합동 결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합동 결혼 추진 • 실제 결혼 생활과 그 이후 • 구술 일화 	05.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배경과 국가폭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남북귀환 어부란? • 사건의 배경 • 연행 • 강제 심문 • 불법 구금, 고문 및 구타 	
학습내용	03. '개척단'의 농지 분배와 이주/정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지조성 현황 • 장흥과 서산의 농지 분배 차이 • 서산 정착민의 요구와 정부의 책임 	06.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 • 지역에서의 고립 • 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 • 가정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 • 최근의 상황 	

6주차 |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



6차시

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6주차 | 학습목표

6차시.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학습목차	
학습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북귀환 어부들에게 미친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. ■ 피해가 가족, 친척에게도 미쳤음을 설명할 수 있다.
학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북귀환 어부에 대한 감시와 일상 파괴, 지역에서의 고립 ■ 연좌제로 인한 가족과 친척의 피해

6주차 | 학습목표

6차시.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
- “배 타면 배 숨긴 데 가가지고 이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저 사람 이북 갔다오니 뭐니 해가지고 또 다 업주들한테 얘기하니까 업주들이 좋아하겠어요? 안 하잖아요. 그리고 그 정보과 그 경찰서 그 양반들이 내가 볼 때는 한 2000(년) 정도까지, 한 20 몇 년간 따라다니고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
- “나중에 이제 형을 살고 나오셨어요. ... 아 이거 동네 사람들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도 느끼고 이런 게 항상 뭐 하루에 한 두 번 정도, 그때는 인제 지금처럼 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집들이 다 이렇게 뭐 슬레이트집이고 그러니까 다 길가 보면 딱 쳐다보면 누구네 집이고 이런데, ... 하루에 한 두 번씩 꼭 희한한 낯선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두 명 정도가 집을 탐문하고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간다는 거예요. 뭐 잘못된 것도 없는데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
- “집 주위에 와서 사복 입고 이렇게 낯선 분들이 왔다갔다 하잖아. 옛날에 시골에 낯선 사람이 올 일이 없잖아. 와서 지키고 있고 그랬죠. 막 집에 옛날에는 막 대진에 있을 때는 막 방에 막 신발 신은 채로 들어오고 막 이랬던 거 같애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감시로 인한 일상의 파괴

- “(동생이) 2학년 때 대통령배 우승했어. 근데 우승, 결승하는 날 아버지가 다른 부모님들은 다 이제 서울로 간 거야. 서울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? 근데 못 갔어. 그 신고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싫으니까. 그런 것 때문에 못 가시고 집에서 라디오를 듣고 계셨지.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

지역에서의 고립

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지역에서의 고립

- “예비군 중대장 통장 반장 또는 여러분들 수시로 (감시를 했고)
저도 그 오랫동안 그렇게 감시를 당하는 걸 알았어도 그렇게 심할 거라는 건 몰랐었어요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지역에서의 고립

- “2차 피해라는게 뭐냐면 옛날 요 동네에서 반공법이라 해가지고 신고하면 막 돈도 주고 상도 주고 막 그랬잖아.
그러니까 배 선주 동생이 간첩이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또 잡혀간 거야.
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버지들이 그 여섯 분 중에서 한 네 분이 잡혀갔던 것 같아.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지역에서의 고립

- 네 분의 아버지들이 ... 우리 또 부락에서 간첩이다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배도 안 타고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네 명인가 다섯 명인가 붙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대전교도소에서 3년 4년 씩 살고 나왔구만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- 연좌제
 - 남북자, 월북자 가족과 친척에게 적용
 - 공무원, 군인 취업 불가
 - 해외 이주 불가
 - 2000년대까지 적용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- 군 복무 당시 불이익
 - “교관이 와서 저 저 자식은 저 빨갱이 자식이라고.
아 아, 이게 막 막 미치겠는 거예요.
내가 군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
내가 들어야 하나?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- 취업 제한
 - “자꾸 신원조회하니깐. 여기 누구야 저 OOO이 사촌 여동생이 공부 잘했더구만. 그 대한항공 안내양으로 가려고 딱 그랬었는데 신원조회에 딱 걸려가지고는 어느 국회의원 확인서하고 속초시장 확인서 하면서 더럽다 해가지고는, 지금 서울 어느 백화점 가가지고 지금 잘 했다 그러더구만.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저점 이렇게 가는 데는 이 신원조회하면 절대 못 가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- 가족 관계 파탄

“둘째 큰아버지는 저희 이제 집안 식구에 이제 그때 이제 아 군인이었어요.
군인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반공법으로 이렇게 딱 몰린다는 거 알고 호적에서 파갔어요.
이름을 그냥.”

[출처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연좌제로 인한 자녀, 친척의 취업 및 해외이주 제한

- 피해자의 자책

“저희 삼촌도 저 때문에 미국 이민을 가려 했는데 이민을 못 갔어요.
그래서 아유, 제가 참 말은 안 해도 마음적으로 정말 미안하죠.”

[출처1] 강원민주재단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“아버지는 늘상 하시는 말씀이 ‘너무너무 고통스럽다.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럽다.’고.
이제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다고.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내가 이제
이 나이가 먹어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
생활이 안 됐던 것 같아요.”

[출처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“그 이후부터 술을 엄청 드시는 거예요. 그 뭐 하루에 뭐 한 세네 병은 기본이시고 [그 교도소에서 나오고 나신 뒤부터] 이후부터 예에. 항상 뭔가 쫓기는 것 같고, 두려워하고 항상 이렇게 이 밖에 나오는 걸 좀 이렇게 겁나하셨어요. 항상 어두운 데 있고,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셨고. 그래서 아버지 나오시고 나서 뭐 저희들 소풍 뭐 이런 거는 아예 뭐 부모님하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안됐어요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“아버지 생활은 거의 아파서 그랬지 뭐. 술도 많이 드셨지. 아프시니까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“좋은 세상 한 번 못 보신 거죠. 이북만 안 갔더라도 또 인생은 달라졌겠죠. 아버지의 삶이 조금 아버지 삶이나 우리 삶이 좀 달라졌겠죠. 그렇게, 그렇게까지 불우하게 자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. 너무 한순간 몇 개월에 아버지가 그런 생활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온 생활이 완전히 이건 내가 창피해서 사실 다 못한 말들 너무 많아요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아버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업을 이끌어 가야 하니까. 여기서 이제 배가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의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는 형편이니까. 그때는 이 배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생선 떼기 하는 거야.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가장(家長)의 피해와 그로 인한 빈곤

- 아침 이제 새벽 5인가? 정도 나가가지고 밤 11시, 12시.
그걸 해야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그때는 뭐 육성회비인가? 공납금 이런 거 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. 겨우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
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는 항상 배를 곯았죠.”

[출처01] 강원민주재단

최근의 상황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최근의 상황

-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
- 재심 청구와 무죄 확정
- 피해자의 사망
- 지속되는 침묵



남북귀환어부 법원서 무죄 판결

[출처02] 강원일보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'연좌제'



최근의 상황

- 국가와 사과와 배상 필요
- 사회적 낙인과 멀리 돌아보기



[출처03] ©김아람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학습정리

- 1960, 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침해
: 개척단과 남북귀환 어부 피해

6주차 1960~70년대 사회 통제와 인권 침해 | 6차시 남북귀환 어부 사건의 장기적 피해와 ‘연좌제’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1980년대 사북항쟁, 여성수용시설 이야기

SOURCES



- [출처01] 강원도, 강원민주재단, 『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심포지엄 자료집』, 2022
- [출처02] 강원일보
<http://www.kwnews.co.kr/page/view/2023011210365818257>
- [출처03] ©김아람

REFERENCE



- [참고문헌 01] 김아람, <가족이 끊어진 구호와 자활: 1950~60년대 합동결혼과 그 주인공>, <<역사문제연구>> 19-1, 2015
- [참고문헌 02] 김아람, <1960년대 개척단의 농지조성과 갈등 구조>, <<사학연구>> 131, 2018
- [참고문헌 03] 국가인권위원회, <<서산개척단 사건 실태파악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연구>>, 2019



기획·조정
이봉규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